

보성 울포에 사계절 해양복합레저타운 조성

430억 투입...국내 최장 스카이워크·생존체험장 등
군, 시설계획 용역 착수...연내 착공 2024년 완공

보성군이 남해안 해양레저 관광시대 개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성군은 지난 3일 김철우 군수와 관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포해양복합센터 시설계획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주요 시설 계획은 길이 45m 스킨스쿠버풀·생존체험장·실내 서핑장·수중 스튜디오·인피니티 풀과 국내 최장 길이의 스카이워크 등이다. 보성군은 사계절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해양레저 거점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2020년 전국에서 2곳이 선정됐다. 총 사업비 43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보성군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시설계획 용역을 거쳐 연내 사업을 착공한다. 사업 대상지인 울포해수욕장 일원은 사계절 온화

한 기후가 특징이다. 자연경관이 우수한 천혜의 입지조건을 자랑한다. 울포 종합관광지가 인근에 있어 기본 관광 인프라도 구축돼 있고, 보성차밭 등 주요 관광지와의 가까워 관광자원 활용도도 높다. 보성군은 추가 해양 SOC사업을 유치하는 한편 동울항·군항항 등지에서 추진되는 여촌 뉴딜300사업 등과 연계해 사업의 시너지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철우 군수는 "울포 해양 레저 관광 거점사업으로 보성형 블루이코노미를 실현하고, 울포해변을 남해안 대표 해변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며 "주변 지역도 규모 있는 관광지 조성하기 위해 별교·장도간 테마로드 조성 사업, 국가 갯벌 조성 사업 등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보성 울포해양복합센터 조감도.



'루미'·'똥이' 탈 쓰고 순천 홍보대사 되세요

시, 공익 목적 무료 대여 등

순천시를 대표하는 캐릭터 '루미와 똥이'가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됐다. 4일 순천시에 따르면 '루미와 똥이'는 시의 마스코트인 흑두루미와 짱뚱어를 형상화한 캐릭터로 특유의 귀여움과 매력력을 발산,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순천시는 루미와 똥이를 활용해 더 재미있고 친근한 방법으로 시장 홍보를 펼치기 위해 '루미와 똥이' 인형탈을 쓴 시민은 순천시 명예홍보대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또 '루미와 똥이' 인형탈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시민 누구나에게 대여 가능하다. 캐릭터 명예 홍보대사를 활용해 각종 행사 및 캠페인에 참여하고 다양한 콘텐츠도 제작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정부 지원 받을까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국제행사로 치를 지 여부를 가늠하는 타당성 조사가 진행된다. 여수시는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가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여수시는 현안 사업인 섬박람회 국제행사 승인에 전념하고, 전남도는 물론 인근 시·군과 협력해 대규모 국제행사 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8월 출범할 한국심진진흥원과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 연계하고, 출범 이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제출했다. 여수세계섬박람회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의 내부 검토를 거쳐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됐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국제행사 승인을 위해 민간 차원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제행사 타당성을 확보해 반드시 승인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여부는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이후 오는 7월 중 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여수세계섬박람회는 2026년 7월 17일부터 한 달간 돌산 진도지구 일원에서 전 세계 섬을 가진 국가들을 초청해 개최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구례군, 천은사탐방로 '상생의 길' 숲 정비 마쳐

구례군은 봄철 행락철을 앞두고 천은사 일대 탐방로인 '상생의 길' 주변 숲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구례군은 지난달 1일부터 한 달간 공공산림 가꾸기 인력의 도움을 받아 천은사 산문~수홍루~천은제 제방을 잇는 2.3km 구간의 수변 길의 고사목을 제거하고 가지치기, 통행 지장 나무 제거 등을 했다. 천은사 상생의 길은 2019년 4월 천은사 문화유산 지구 입장료 폐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조성됐다. 탐방로와 편의시설을 개선해 장애인, 노약자도 다닐 수 있는 무장애 시설로 변모했다. 수달 등 야생동물의 생태를 고려한 친화형 탐방로를 표방하며 전망대와 나무 교량 등도 확충했다. 그동안 수변 길 주변은 국립공원 구역이라는 특성상 제대로 된 숲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들이 방치되고 덩굴과 잔가지로 인해 통행에 지장을 주는 구간이 있었다. 구례군은 군도로 관리하게 된 천은사~노고단 도로변 숲도 점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순사건특별법 제정하라"

전남 동부권 6개 시·군 의회 성명

전남 동부권 6개 시·군 의회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4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전장군 여수시의회의장과 허유인 순천시의회의 의장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장을 만나 공동성명서를 전달하고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다. <사진> 공동성명에는 여수와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등 전남 동부권 6개 시·군의회가 참여했다. 6개 시·군의회는 성명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난 2월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3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6개 의회는 이어 "여순사건은 73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특별법 제정이 이르지 못한 채 지역민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족과 지역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생각한다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제56대 곡성군4-H연합회 장성수 신임 회장 취임

곡성군4-H연합회는 최근 곡성농업기술센터에서 4-H회원 및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곡성군4-H연합회 제55-56대 임원 이·취임식 및 연시총회'를 열었다. 연합회는 앞서 제56대 임원으로 장성수 회장(겸면)을 비롯해 김동찬 수석부회장(석곡면), 문형수·차석남 부회장(곡성읍), 김서희 차석여부회장(옥곡면), 김태완 사무국장(옥곡면), 박충만(겸면)·심재명(곡성읍) 감사를 선임했다. 연합회는 이·취임식에 이어 열린 연시총회에서 지역사랑 농촌봉사활동, 역량강화 교육, 과제활동 지원사업 등 4-H회원들의 능력 개발과 조직 활성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장성수 신임 회장은 "4-H회가 곡성군 청년 농업인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탁·노·체 이념을 토대로 열의를 가지고 연합회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h2 style="color: red;">미스트크리너</h2> <p style="color: red;">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p>	<h2 style="color: red;">더스트크리너</h2> <p style="color: red;">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p>	<h2 style="color: red;">전기집진기</h2> <p style="color: red;">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p>
--	--	--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